

📖 전례안내

	합동미사	
	1월 7일	1월 14일
해설	상진아	서도
독서	홍진호, 김수현	심준우, 이찬미
복사	현중환, 유수현	정건호, 김은혜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목주기도	53686 단	

🎵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 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본당 소식

1. 공동체 봉사에 감사 및 부탁

공동체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2년동안 앞장서서 본당일을 신경써주신 사목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사목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아직 봉사해주실 분들이 부족하기에 사목회인사는 1월 14일 미사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리고 많은 기도부탁드리겠습니다.

2. 초 봉헌 및 축복 2월 2일은 주님봉헌축일입니다. 이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년동안 사용할 제대초와 개인 기도초를 축복합니다.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해주실 분(1개 \$6)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초(1개 \$4)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대회원들께 신청해주시요. 신청 마감은 1월 14일까지 입니다. 초 축복예식은 2월 4일 주일미사 중에 있겠습니다.

3. 성소후원회 안내 및 회원모집

- 성소라는 말은 풀이하면 ‘거룩한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성소를 지망하는 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을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에도 초대하고 양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 가려고 준비하는 예비 성소자들과 이미 성소의 길을 걷고 있는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청하며 기도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소후원회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별히 일생을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제, 수도자들과 예비 성소자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
- 성소후원회 총회가 21일(일)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성소후원회의 운영방침과 재정보고 및 그동안 학사님들을 위해 해왔던 활동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성소후원회 회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 1월 20일(토)까지 성소후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소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도모임을 위해, 총무님(이은희 카타리나)께 성소후원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으로 등록해주시고, 성소후원행사 및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기도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김동어(요셉) 박문자(카타리나) 가정에서 2024년 새해를 맞아 감사하는 의미로 교우분들께 다음주(14일) 점심 식사(갈비탕)를 제공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 주일학교 소식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1	Lector2	Altar
1/7/2024	봄학기 시작			Suhyun Yoo
1/14/2024				Mary Kim
1/21/2024		Subin Yoo	Ayn Chung	Dae San Kim
1/28/2024				Ayn Chung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교리 상식- 기도할 때도 촛불을 켜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 사귄, 섬김, 나눔의 공동체 ✦

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22) 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미사 때에 제대에 촛불을 켜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촛불을 켜는 것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성스러운 곳이나 또는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는 데는 빛이나 불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주님 성소에는 등잔 일곱개를 엮을 수 있는 등잔대를 만들어 불을 밝히라고 규정합니다(탈출 25,31-37).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는 기록도 있지요(탈출 21,23).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등잔불이나 촛불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저녁에 모여 기도할 때 어둠을 밝힌다는 실용적 이유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과 희망의 상징, 천상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기쁨의 상징으로 장례식 때 또는 순교자들 무덤에서 촛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이후부터는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이나 예식 때에 촛불을 켜는 관습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등잔불을 사용하는 관습은 점차 사라지고 12세기 쯤에 와서는 초를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규범이 됐습니다. 촛불이 교회 예식에서 사용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촛불이 불꽃과 심지, 밀랍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삼위일체에 비겼습니다. 또 밀랍을 그리스도의 육신에, 심지는 그리스도의 영혼에, 불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비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가 타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비길 수 있겠습니다.

교육선교위원회

**(나해) 주님 공현 대축일
(2024년 1월 7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박재희 요한	216-861-4630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캐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캐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